

《_____ 영어 독해와 작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련 자료》

하이에듀

주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활동 주제 추천
가이드	<p>진로: 교육(초등교육, 영어)</p> <p>요청사항: Raymond Carver의 Cathedral과 엮어서 교육적 주제와 언어적인 역량을 두루 나타낼 수 있는 활동 주제 추천</p> <p>선정 도서: Cathedral(Raymond Carver)</p> <p>추천하는 주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의 수용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가치</p> <p>주제 추천 근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p>"대성당"은 문학 작품의 수용과 관련한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수업 시간에 이 작품을 읽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학의 힘과 문학을 통한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p><p>문학수업의 큰 목표는 작품내용을 인지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으로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문학 수업에서 지적 정서적 변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소설 속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정서적 학습을 촉진한다. 소설은 주인공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시작하여 맹인 손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인공이 편견을 극복하고 소통 불가능성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해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소설 속 주인공의 변화를 통해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가치로 표현되지 못한 누군가의 가치를 발견해 존중하겠다는 서사윤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p><p>또한, 문학 작품을 수용한다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작가와 소통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다루게 된다면, 학생들은 작품을 수용하는</p></div>

과정에서 소설 속 주인공과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고, 주인공이 맹인에 대해 선협적 편견을 넘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문학 작품의 수용을 통해 교육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선입견 극복, 사회적 이해력과 같은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문학을 교육의 도구로써 활용하고 문학적 경험을 통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미래 교육의 한 방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통해 언젠가 학생들에 찾아올지 모르는 현현(epiphany)을 준비시키는 일, 삶을 불현듯 엄습하는 불안을 손잡고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일일 것이다.

- 현현(epiphany):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을 뜻하는 말. 원래 'epiphany'는 그리스어로 '귀한 것이 나타난다'는 뜻이며, 기독교에서는 신의 존재가 현세에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참고: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 아픔도 나뉘지는 것일까

<https://www.hani.co.kr/arti/PRINT/844478.html>

* 해당 가이드를 활용해 서연 학생의 관점에서 탐구 활동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정보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소통 불가능성에 대해 다른 시각을 드러낸 작품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으로 맹인은 맹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시각적으로 본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굴욕적이지만 주인공의 아내와 주인공보다 더 잘 소통한다.

아내를 보기 위해 주인공 집에 방문한 맹인과 대화를 나누며, 눈을 감은 채 대성당을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그려보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주인공은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즉,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세계는 바로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해 새롭게 구축하는 자기만의 세계이다.

대성당을 포함한 작가의 소설집에서 작가는 여러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소통과 화해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마지막 <대성당>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통해 알 수 있는 낯선 타자의 공포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를 낯섬'으로서 정의한다. 그는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을 가진 타자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것은 근본악이라고 생각했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받아들이고 환대하며 타자에게 선을 행함으로써만 근본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 레비나스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타자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자신과 타자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자신의 문제이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타인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으로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리고 또한 타인을 통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된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영어 exist 라는 단어는 Ex(밖으로) + ist(존재하다) 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에서 유추해보면 서양인들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밖으로 나가 수많은 타자 즉 수많은 내 자신과 만나는 길이 내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듯 서양은 타자란 인간으로서의 절대적 과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자를 대하는 태도도 그 사람 수만큼 다양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패러다임으로 타자를 재단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오랜 시간 축적되는 면도 무시할 수 없기에 자기 자신의 패러다임을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패러다임은 그 주체가 오래될수록 확고해지고 고정되는 성향을 가지기 쉽다. 편함과 보수성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이미 확립된 자신의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며 결국은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의미는 퇴색되고 그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패러다임을 유연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패러다임의 긍정적 변화를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나이를 먹어도 누구나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축적'의 의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축적은 자신의 의지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양적으로 많다는 것은 질적으로 낫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경험'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 물론 모든 경험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험에 얻어진 모든 깨우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너무나 익숙해진 경험은 그에게 어떤 깨우침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의 깨우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익숙함의 반복이고 깨우침이 상실되었다면 그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 거와 다름없다. 그런 경험은 단지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학은 익숙함을 낯설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진정한 경험 혹은 깨달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이런 경험을 달리 말하면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갑작스런 충격으로서의 경험은 영화나 문학 같은 예술 장르에서 널리 쓰이는 소재이다. 특히 영화 'Stand By Me'에서 이런 주제가 잘 나타나 있다. 영화에서 고디를 비롯한 4명의 아이들은 시체를 찾은 경험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한순간의 짧은 경험이 그 이후의 수십 년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그 경험이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겪더라도 모두 다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영화 'Stand By Me'에서도 4명의 아이들이 모두 시체를 봤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이는 고디와 크리스 뿐이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자신 안에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면 이는 경험하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다.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 소설 대성당은 소소하고 건조한 문체로 인간의 본질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 항상 그의 단편 소설은 평범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성당'에서 화자가 아내의 친구인 낯선 맹인과의 만남은 언뜻 특정해 보이는 설정이지만 실은 우리는 일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낯선 타자를 마주치는 것에 알 수 있듯이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 소설 '대성당'의 소재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그러나 텍스트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느낌을 주면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특이하고 특별함을 찾는 것이 작가의 의무이자 작품 존재의 의미이다.

이 대성당이라는 작품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서의 한정된 공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작품의 의미에 대한 무게는 장편 소설 못지않게 강렬하다. 또한 단편 소설만의 간략한 서술의 특징으로 독자의 행동반경을 더욱 더 자유롭게 하여주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성장 소설의 흐름과 유사점을 보여준다. 다만 그 대상이 이미 주체화된 어른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성장이란 단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한정되는 단어로서 오인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삶에 지치고 고착된 어른들의 삶에도 아이 못지않게 성장이란 단어가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화자의 아내가 시를 쓰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로 삼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겨운 현실에서의 삶의 안주와 극복되지 못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성장'을 희망하는 욕망의 표출이다. 그리고 아내의 시를 새로운 성장을 희망하는 시가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시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맹인 친구가 아내 얼굴의 모든 부분부터 목까지 그의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생겼던 느낌을 표현한 시로 대표된다. 또 후자는 아내가 공군 행정관의 아내로서 가졌던 느낌을 표현한 미완성의 시로 대표된다. 이 시는 긍정적인 성장의 모습을 도저히 꼬집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화자의 아내는 아직 완성할 수 없었다.

현대 사회의 남편이라는 개념은 두렵고 낯선 타자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에서 매우 중요해졌다. 이는 현대인 구조적 고독감으로서 다시 해석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점점 기술의 발전이 커지면서 현대인의 삶은 더욱 복잡성을 띄게 되었다. 이에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주거지의 폭도 예전과 비교도 안 되게 확장되어 갔다. 그럼으로써 사람 간의 이해관계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이제는 예

전의 협동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계약적인 인간관계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과 타자간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게 되어버렸고 점점 인간은 고독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대 인간의 사회에서의 구조적 고독은 가족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조차도 소통의 부재로 고독감을 더욱 깊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이 혼율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 홀로 혼자 사는 싱글족이 늘어나는 일이 이를 대변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품 안의 부부도 심각한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다. 우선 소설 속의 화자인 남편은 아내의 시를 쓰는 행위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화자는 아내의 애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위를 아내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잦은 근무지의 변경으로 사회에서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화자가 가정에서조차 관계의 단절을 느끼니 더욱더 견디기 힘들어진다. 결국 화자는 아내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후에도 아내와의 관계 단절을 극복하지 못했고 어정쩡한 소통의 부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부부간의 소통의 부재는 양쪽 모두에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 즉 이 부재는 아내로 하여금 맹인 친구와의 소통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끔 만들었고 화자는 화자대로 마약을 하고 의미 없는 TV 시청을 함으로서 고립된 현실에서의 도피처를 마련하게 하였다.

이런 악 순환적 부재라는 수렁에서 빠진 부부에게 맹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아내와 남편에게 상반되는 느낌을 주는 존재였다. 아내에게는 구원과 같은 의미였고 남편에게는 단지 질투의 대상이었고 두려운 낯선 타자였다. 맹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해 보도록 하자. 남편은 아내의 시 자체에 대해선 관심은 없지만 그 맹인이 아내의 시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시의 내용이 맹인이 아내의 얼굴을 만졌을 때의 그 느낌을 쓴 것이 때문에 더욱더 그러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아내의 친구인 맹인에 대한 질투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남편은 생각을 유연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약간은 세상을 뺄어지게 바라보는 관점의 소유자였다. 맹인의 죽은 아내를 얘기하면서 그녀의 이름이 유색 인종이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는 맹인의 아내가 Negro 인지 물어본다. Negro 라는 단어가 가지는 인종적인 부정적인 면은 남편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맹인에 대한 선입관이 상당하다는 것이 텍스트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 맹인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단지 간접 경험으로 인한 습득만으로 맹인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남편의 이런 뺄어짐의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텍스트에서는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인 추론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릴 적부터 작품속의 화자처럼 선입관에 사로 잡혀 있고 타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배타성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는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는 자신의 성장의 동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퇴보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성장을 통해 퇴보의 동기를 선택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퇴보성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힘겨운 상황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아예 외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조차도 일상에서 계속

되어지는 경험이다.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남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행했던 경험들이 다시 돌아와 나 자신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작품속의 화자인 남편이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아내는 어떤가? 아내는 남편보다는 소통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사람이지만 다소 소극적인 사람이다.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놓이지게 되면 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데 이를 사람들은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교도소를 탈출해 나가는데 주인공의 자기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주인공을 선하고 반면 주위 환경을 악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그 교도소를 탈옥 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교도소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주인공이 그 교도소에 갇힌 상황에서도 망쳤을 뿐이다. 그래서 이를 소극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내는 자기의 삶을 소극적 자유로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절망적이었을 때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맹인 친구와의 소통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도피처로 삼았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남편과의 관계의 어긋남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이 Negro 라는 인종 차별적 말을 할 때에나 남편이 마약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화를 내고 멸시적으로 바라볼 뿐 남편을 개선시키려는 의지나 남편을 이해하려는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냥 어긋난 소통의 냉소적 거리감을 유지할 뿐이다.

이런 남편과 아내의 변하지 않는 부정적인 소통의 단절에서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온 이는 맹인이다. 엄숙하고 근엄한 웃음기 없는 집에서 갑자기 태어난 아기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맹인은 남편과 아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다. 소설에서는 특히 남편과의 대비되는 모습을 많이 묘사된다. 맹인은 남편과 달리 낯선 타자를 거부감으로 바라보지 않고 호기심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그는 어떤 제안도 거절하는 경우가 없다. 심지어 남편이 마약을 같이 하자고 권유했을 때조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이 궁금했다. 그래서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화자의 아내와도 소통을 이룰 수 있었고 햄(Ham) 통신을 하거나, 암웨이(Armway) 영업소를 하는 등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오히려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더 세상을 잘 보는 계기가 되었던 거 같다. 그는 마음속 눈으로 컬러 TV와 흑백 TV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하나의 장애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좀 더 그 기능들이 향상되어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맹인에겐 물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잘 이어나갈 수 있었다.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암 투병도 그에겐 자신의 안 보이는 눈과 같은 단지 장애 일뿐이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은 둘이 아닌 하나로 진정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이나 그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화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마음의 눈으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아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어 세상을 자신만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이에 남편의 단단함을 풀어줄 순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지체 없이 그에게 선을 베풀었다

남편을 무언가 새로운 세계로 이끈 사람이 아내의 친구인 맹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남편 자체에 있었다.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감동을 느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타자의 뛰어남이나 설득력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타자를 받아들인자가 없다면 그 타자와 일종의 화학 작용은 일어날 수 없었고 결국은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역으로 이 논리를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타자의 논리를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어떤 타자도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무사고이다. 이런 무분별한 받아들임은 결국 자신의 자기되기에서 더욱 더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대 사회의 자신의 타자화의 대한 유혹 때문에 자기되기는 더욱 더 위태로워졌다.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아도 텍스트에서의 화자는 아직 표출되지 않았던 자신의 자기되기의 단서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맹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절실히 욕구하는 그런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전에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화자를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딱 막혀 질식할 거 같았던 세계가 이제는 화자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 진정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사실 그 구원의 손길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화자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화자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다.

화자가 맹인과의 만남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화자의 대사(It's really something p307)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는 암시적으로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열린 결말은 독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 독자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작가와 대등한 주체로서 텍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독자의 참여에 의해서 텍스트는 고정적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가능성의 대상으로서 시대와 장소의 범위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었다.